

issue comment

Analyst **설용진** s.dragon@sks.co.kr / 3773-8610

SK증권 리서치센터

summary

- 11/2 주요 대형 보험주의 주가는 2.5~7.9%의 낙폭을 보이며 대거 하락
- 하락의 원인은 FOMC 및 미국 국채 발행 계획 등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으로 추정
- 다만 전일 주가 낙폭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. 과도한 주가 조정은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

보험주 주가 하락 관련 Comment

- 전일 국내 주요 대형 보험주(삼성화재, DB손해보험, 현대해상, 코리안리, 삼성생명, 한화생명, 동양생명, 미래에셋생명)의 주가는 2.5%~7.9%의 낙폭을 보이며 대거 하락.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큰 낙폭을 기록
-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제시할 수 있음. 연준은 지난 FOMC에서 기준금리를 5.25%~5.50%로 2회 연속 동결을 결정.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이 이를 비둘기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한단계 낮아진 것으로 분석. 미국 재무부의 4Q23 국채 발행 계획이 우려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 또한 이러한 시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
- 하반기부터 보험주가 방어주 관점에서 KOSPI 대비 Outperform해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차익 실현 관점의 주가 하락이 일부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
- 구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 듀레이션이 긴 보험주 특성상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. 다만 IFRS17과 함께 도입된 IFRS9으로 과거와 달리 투자자산 내 FVPL금융자산(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)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금리가 안정화되는 국면에 평가손익 개선을 통해 투자손익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
- 전반적으로 전일 보험주 주가 하락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.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현재 금리수준이 지속될 경우 보험주를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. 과도한 주가 조정은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관리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
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 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-> 매수 / -15%~15% -> 중립 / -15%미만 -> 매도